

'2024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 교통대책 회의 개최

강진경찰서·마량면 사회단체장 등 10여 명 참석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불편 최소화"

강진군은 25일, '2024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교통대책 회의를 강진군청 군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강진원 강진군수 주재로 강진군 해양수산과, 안전재단교통과, 마량면 등 관련 부서와 강진경찰서, 마량면 지역발전협의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유관 기관 및 단체들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각 분야별 교통과 안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이 자리에서 대회 날 3천여 명이 동시 방문할 것을 대비해 마량항 물양장 주차장 4곳, 460면 외에 강진군 수협부터 신마방향까지 갖길과, 수인삼거리부터 서중방향까지 해안도로 갖길을 임시 주정차 구역으로 확대 조성하

고, 셔틀버스 운행으로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차로들을 일방통행으로 진행해, 교통체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5-6월 총 11차례에 걸쳐 열리는 대회 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체계 운영을 위해 강진군, 강진경찰서, 주차 운영업체 등 많은 인력이 동원되며 총괄은 강진군 안전재단교통과에서 맡고, 마량면 지역발전협의회와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가 지원하는 등, 민관 협업을 통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성공한 행사의 처음과 끝은 원활한 교통 관리에 있다"며 "행사장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불편함을 최소화해 더 만족스러운 행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어르신 건강증진 총력

진도군 보건소가 관내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 격차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을 방문, ▲아리랑 체조 교실 ▲구강 이동차량 진료 ▲한의약 건강증진 '집 치료' 등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리랑 체조교실'은 전문 운동 강사를 위촉해 68개소 마을 경로당의 어르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주 1회 건강 체조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구강 이동차량 진료'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보건소 전담 인력을 구성해 복지시설 4개소와 경로당 85개소의 어르신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구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방 침 치료 등 통합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년층의 건강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활력 증진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자매결연 제주시 방문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홍보

진도군이 최근 자매결연도시 제주시를 방문해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제주시청사 내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모집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 30% 이내의 답례품과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는 도내 농수축산물 판매 촉진, 관광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남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100만명 모집 활동을 오는 6월 말까지 진행 중이다. 진도군과 제주시는 고려시대(1270년) 대몽항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한 삼별초항쟁 역사의 현장을 품은 지역으로 1989년 5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대표축제 방문과 교류도시 상징물 조성, 우수 시설 견학 등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장흥군, 中웨이하이 종합보세구와 50만불 수출협약 제6회 한중(인천) 과징전자상거래 대회서 2년간 50만불 협약

장흥군은 중국 웨이하이 보세구와 50만불 수출을 내용으로 한 전략적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9일 열린 제6회 한중(인천) 과징전자상거래 대회에 참석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한중 과징전자상거래는 한국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항공과 선박을 이용한 물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1회, 6회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 장흥군은 수출 업무협약, 장흥군 참여기업 제품 브리핑, 전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동시에 합의했다. 중국 웨이하이 보세구와 협력사업은 장흥군

농특산물의 해외 전자상거래(온라인쇼핑몰) 활성화 및 수출시장 개척 물류루트 조성 등이다. 웨이하이 종합보세구를 통한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수입인허가 등록, 신고 등 면제, 관세부과 유예, 45일간 상품 무료 물품보관(6개월 범위내 연장)이 가능하다. 보세구 창고의 활용으로 최적화된 직구 수출입 물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웨이하이 수출협약을 계기로 중국 온라인쇼핑몰 입점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 추진되고 있는 장흥군 농특산물 수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해외 수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 조기재배 블루베리 본격 수확 시설하우스 가운데재배로 수확 2개월여 빨라져...농가수익도 특출

해남군에서 조기재배를 통한 블루베리 수확이 시작됐다. 노지재배시 6월경 수확을 시작하는 블루베리를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가운데재배로 2개월 가량 앞당겼다. 블루베리 조기재배는 최근 급격히 지고 있는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해 다겹보온 커튼과 이중하우스 등을 활용한 가운데재배와 에너지 절감 기술을 활용해 가능해졌다. 특히 일반 재배보다 크게 빨라진 농가에서는 1kg 판매가격이 5-6만원에 거래되면서 6월 평균 가격인 3만원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해남 블루베리는 풍부한 품종과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라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신선 블루베리는 농가 직거래나 해남군 로컬푸드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해남군블루베리연구회 임주선 회장은 "홍수출하기를 피해 조기 재배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이지면서 농가 수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완도군, '찾아가는 주민 참여 학교' 운영

완도군은 도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 제도'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노화읍과 소안면, 보길면, 청산면, 금당면에서 교육을 했고, 30일에는 금일과 생일면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을 통해 주민들은 '주민 제안 제도'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취지 및 목적을 이해하고, 온라인 국민 신문고를 통해 일상 속 불편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 제안 제도'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주민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과 지방정부 예산 편성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교육에 참석한 한 주민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렇게 간편하게 건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참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